

경제 위기 극복... '국민 통합의 시대' 열어야

통합·신뢰 리더십 토대로 경제 회복 염원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은 통합과 신뢰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역할을 결집하고 새로운 도약을 힘차게 이끌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가 신뢰 대통령과 새 정부의 지혜롭고 강력한 리더십 아래, 모든 경제주체들의 열정과 신뢰가 한데 모여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산업의 전략적 육성 등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미래 성장동력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

특히 민간 경제의 성장엔진인 기업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일자리창출과 투자, 생산활동에 전념하며 새 정부 5년의 성공을 위한 동반자로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길 당부한다.

국민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사회 만들어 주길

정병곤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번 6월3일 선거로 취임하는 제21대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곁 위로 취임하는 대통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 의결 통보를 받는 즉시 임기를 시작한다. 어려운 시기에 취임하는 새 대통령에게 거는 우리 국민의 기대는 매우 크며, 새로 취임하는 새 대통령에게 다음을 부탁 드리고 싶다.



책을 새롭게 해 인공지능(AI) 산업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 발전에 대한 투자와 창업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을 보듬을 수 있는 부의 재분배에 더 힘써 주길 기대한다.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치·사회적으로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우리 사회를 위해 '서버트 리더십' 즉, 낮은 자세로 구성원들을 복돋아 최대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지도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옛말처럼 지금의 위기 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바꿔 주길 기대한다.

교육 기회 확대·불평등 해소에 적극 노력해야

양복렬 광주제림초등학교 교사

저는 초등학교 교사이자 교육공무원으로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일이 곧 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대통령께서도 이 같은 교육의 소중함과 무게를 깊이 새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융합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혁신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권 강화와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배움의 즐거움을 함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교육 불평등 해소와 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교육 혁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주권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 세우야

유창민 광주전남춌총노동조합 사무국장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고 맞이한 국민주권의 승리이다. 국민은 투표로 내란 세력의 청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해 12월3일 내란 사태 이후 6개월 간 이어진 투쟁의 마무리이자 본격적인 내란 세력 청산의 시작점이다.



이제는 국민주권 시대다. 국민 뜻을 거스르는 세력은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청산될 것이다. 지난 겨울 국민은 광장에서 거대한 항쟁을 이끌어 내란 세력을 청산했고, 주권을 실현의 첫걸음을 만들었다.

첫째는 검찰개혁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와 국민 직선제 검찰총장 도입에 나서야 한다. 둘째는 내란 특별법 제정이다. 특별법으로 내란 동조 세력을 엄정 수사해야 한다. 셋째는 명태군 특별법이다. 이 사건은 국민의 힘 핵심 인사들의 부패와 비리의 집약판이다.

국가 시스템 정상화...예술계 지원도 기대

이선 이강하미술관 학예실장

12·3비상계엄 이후 모든 사회시스템이 마비돼 마음을 졸이며 견뎌야 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이 6개월의 시간은 살면서 가장 답답한 기간이었다.



아울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더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는 동시에 문화예술 창작활동이 왕성하게 이뤄지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

여정은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다.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오늘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다. 새 지도자라는 전임 대통령이 형용어 놓은 국가 시스템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하며, 내란 세력들에 대한 엄준한 법의 심판을 통해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집중 완화·지역 주도 성장 기반 마련해야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

엄중한 경제 상황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새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와 책임은 막중하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음 세대를 간곡히 요청한다.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정부가 선도적으로 지원하고, 기업들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을 연계하고, 군·민간공항 통합이전과 장기적으로는 광주·전남 페스티벌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육성시켜야 한다. 아울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따뜻한 리더십과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오월 정신 헌법 수록' 등 이젠 국가가 응답할 때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대통령 탄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번 대선은 단지 정권 교체를 넘어, 현 정 질서를 위협했던 내란세력에 대한 국민의 명확한 심판이며 진실과 정의의 국정의 중심에 다시 세워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였다.



오월 영령 앞에서 우리가 떠는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다. 5·18은 광주만의 과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해야 할 민주주의의 자산이며, 자유·인권·연대의 정신은 다음 세대와 세계가 함께 계승해야 할 미래의 가치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행에 옮겨야 한다. 민주·인권보존이실적 정책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역사적 책임을 다해주시길 기대한다. 유족회는 국민과 함께 그 약속이 이행되는 날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함께하겠다.

농업·농촌의 소득 안정과 복지 증진에 관심

김윤자 농협 광주본부 경영기획단장

농업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자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소중한 산업이다. 하지만 최근 농촌은 고령화, 인구 감소, 기후 변화, 곡물가격 불안 등 여러 어려움이 직면해 있다.



추진해 주길 바란다. 첨단 기술을 접목한 농업 혁신이 이뤄질 때, 우리 농업의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농산물 가격 안정, 유통구조 개선, 복지 확대 등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명한 미래지향적 문화예술 정책 희망

임흥석 (사)한국소극장협회 광주시지회장

예술은 항상 생존하기 위해 스스로 진화를 거듭한다. 정부에서 예술과 관련한 진흥법들을 다수 제정하고 여러 장치를 거듭 만들어 내고 있다.



지역 예술의 발전, 공연문화의 미래는 결코 쪼여 주는 지원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정책 방안을 현명하게 세우는데 있다고 하겠다.

문화, 제작극장의 기틀 마련 등이 예술과 문화가 대중 속에서 살아 숨 쉬며 자랄 수 있음을 인지하길 바란다. 지역 예술의 발전, 공연문화의 미래는 결코 쪼여 주는 지원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정책 방안을 현명하게 세우는데 있다고 하겠다.

갈등 넘어 포용...청년 목소리도 반영되길

남주성 호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025년 지금, 청년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다. 등록금 부담, 불안한 취업 전망 등 어느 하나 가볍지 않은 과제들을 안고 산다.



균형 회복이다. 성별, 세대, 지역 등 다양한 갈등 지점을 중립적으로 바라보며 차별 없이 정책을 설계해주길 바란다.

바로 그 시작이 대통령의 태도와 관점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새 정부가 앞으로 5년, 청년들이 조금 더 불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